

## 투데이

# J프로젝트 골프장 규모 줄어들 듯

환경부 요구에 81홀→63홀 축소방안 검토 전남개발공사도 경도골프장 민간 매각기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삼호지구내 골프장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삼호지구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테레이는 81홀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구조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을 63홀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골프장 수 과다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정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환경부가 면적 조정을 요구하는 등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를 주관사로 한 서남해안테레이는 지난해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1000㎡(262만평)에 18홀 기준으로 골프장 4.5개(81홀·321만1000㎡) 및 대규모 스포츠·레저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글자로 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최초 주관사인 금호산업의 유동성 위기로 에이스회원권거래소가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27홀 수준으로 불과한 조성 계획이 변경됐지만 골프장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게 전남도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J프로젝트 부지 내 구성지구(21.87㎢)에 들어서는 골프장만 126홀(18홀짜리 7개)에 이르고 향후 부동지구에도 144홀(18홀짜리 8개) 규모의 골프장 조성 계획이 검토중인 상황에서 81홀은 지나치게 많다는 논리를 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남해안테레이는 이에 따라 골프장 수를 63홀(18홀짜리 3.5개) 규모로 조정해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방안을 전남도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54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J프로젝트를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 클러

스터 및 사업성을 감안해 63홀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경도골프장(27홀)을 완공한 뒤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갖고 지방공기업 건전성 확보방안으로 자산 매각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개발공사는 2013년 1월까지 회원권 부임 활성화를 통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골프장 인수 여건을 조성한 뒤 매각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을 비롯한 경도해양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差시장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 방문

투자유치를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2일(현지 시각) 이탈리아에 위치한 '프리울리 주립 모자이크 학교'를 방문, 학교 시설과 작품 제작과정을 둘러보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프리울리주 간 문화사업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 F1 코리아 그랑프리 내년엔 4월에

올 10월 치른후 6개월만에…예산마련 등 일정 빠듯

내년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의 일정이 4월20일부터 22일까지로 확정됐다.

5일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동차연맹(FIA)은 4일(한국시각) 바레인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전세계 21곳에서 펼쳐진다. F1 대회가 한 시즌에 21곳에서 열리는 것은 2012년이 처음이다.

영암 서킷에서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는 시즌 5번째 라운드로 치러지며 미국(텍사스 오스틴 서킷)은 처음으로 레이스에 참여하게 된다.

코리아 그랑프리는 연습주행(20일)

예선(21일)을 거쳐 22일 결선 레이

스가 열린다.

하지만 올 대회(10월)가 끝난 뒤 내년 4월까지 6개월 안에 개최료·운영비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일정이 빠듯한데다, 내년 대회 개최에 따른 부정적 기류도 적지 않아 혐로(險路)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올해 개막전으로 예정됐다

민주화 시위 등으로 취소됐던 바레인 그랑프리는 오는 10월 28일~30일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기간에 예정됐던 인도 대회는 브라질 대회(11월 25일~27일) 뒤 12월 11일 시즌 최종전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뉴스 브리핑

#### 최저임금 요구안 劳 5410원 使 4320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요구안이 지난 3일 공개됐다.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5410원을, 경영계

는 동결(43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이 같은 요구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 퇴직후 1년간 관련업무 금지

행안부는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1년간은 민간기업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계획이다.

#### 소방차에 양보안하면 과태료 5만~6만원

올 연말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 道, 농림예산 보조사업 축소, 융자사업 확대

전남도는 농업경제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은 축소하고 융자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낮게 평가될 경우 지원율을 중단하거나 융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늘 제56회 현충일  
오전 10시 1분 묵념

연번	개최국(지역)	최종결선일
1	비리안 사키르	3.11
2	호주 멜버른	3.18
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1
4	중국 상하이	4.8
5	한국 경암	4.22
6	터키 이스탄불	5.6
7	스페인 바르셀로나	5.20
8	모나코 몬테카를로	5.27
9	캐나다 몬트리얼	6.10
10	미국 텍사스	6.17
11	유럽(스페인) 발렌시아	7.1
12	영국 실버스토	7.15
13	독일 호켄하임	7.29
14	헝가리 부다페스트	8.5
15	벨기에 스파	9.2
16	이탈리아 몬자	9.9
17	싱가폴 싱가풀	9.30
18	일본 스즈카	10.14
19	인도 뉴델리	10.28
20	아부다비 애스	11.11
21	브라질 상파울루	11.25

제56회 현충일인 6일 오전 10시 광주 도심 주요 교차로에서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주도목념이 실시된다.

광주지방보훈청은 현충일을 맞아 이날 오전 10시 실시되는 '전 국민 주도 목념 참여 캠페인'에 따라 광주공원 인근 천변 좌우로 및 금남로 일대 주요 교차로에서 차량 통행이 1분간 통제된다. 지난 3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는 남구 빛고을문화회관에서 오전 9시57분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현충일 추념식을 진행한다.

전남도도 같은 시각 목포시 옥암동 부흥산 현충탑 앞에서 추념식을 열고 호국 영령을 추모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광주천 자전거도로 개선

## '함바 비리' 의혹 임상규 총장 출국금지

### 유상봉씨에 돈받은 정황 포착

동생인 건설업자 임모씨 명의 계좌로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임씨는 "돈이 들어온 사실은 있지만 아파트 매수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일 뿐이며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달 초 검찰에 낸 진정에서 "임씨는 경북지역 대형 공사 회장의 식당 운영권을 빼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서 임 총장의

했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 박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전날 조사 내용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냥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박 회장은 재소환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금호아시아나와 관련해서는 "진술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검찰 출석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15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오랜 조사로 피로가 누적돼 조사를 빨리 마쳐달라는 피의자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檢, 비자금 의혹 박찬구 회장 재소환

금호석유화학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차맹기 부장검사)는 4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박 회장은 전날 조사 내용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냥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박 회장은 재소환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금호아시아나와 관련해서는 "진술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검찰 출석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15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9년 6월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검찰 출석 직후 그룹 주요 계열사 팀장 50여명을 모아놓고 자신이 쓴 메모를 직접 보여주며 결백을 강조하는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높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 설취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별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별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별기가 질립니다.

문의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전화 302-0136-6325-61 권목연

## 공무원 특별자금

주조회 기획시스템 · 100% 정부장관이 참여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 월이자 5만원)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1.2%~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

##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